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더 큰 일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성령으로부터 온 바른 열심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입니다. 영적이고 추상적인 무엇, 혹은 허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성경적 가치대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한 기쁨과 감격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갈 4:7).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에 따른 직무와 직능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지혜롭고 덕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우리의 방향과 의도가 아버지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 자녀로서의 삶에는 영광과 함께 감수해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롬 8:17).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 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알고 있습니까?
- ② 자녀로서 영광만 바랍니다, 아니면 고난도 감수합니까?